

한동대학교 제6대 대학평의위원회

2016학년도 2학기 제1차 정기회의

(제2회 회의록)

구 분	평의원
의원정수	11명
재적인원	11명
참석인원	7명

회의 일시 : 2016. 09. 29(목) 13:00 ~

회의 장소 : 현동홀 VISION 회의실

성원

1. 참석자 (7명)
배건웅 의장, 강사웅 평의원, 장규열 평의원, 최규학 평의원, 백이삭 평의원, 권상석 평의원, 황혜리 평의원
2. 불참자 (4명)
한윤식 부의장, 최유강 평의원(유선참여), 주병창 평의원, 유승대 평의원
3. 안건 관련 참석자 : 정팔교 법인팀장, 진상호 사무처장
4. 회의록 작성 : 차효성 과장(전략기획팀)

회의 안건

- 총장인선 규정 관련 이사회 회의 결과
- 곡강개발 대처 방안 점검
- 비전 2025 중장기 발전계획
- 대학 평의회 회의록 구성원 전체 공유 방법

의결 및 토의

- 총장인선 규정 관련 이사회 회의 결과
 - 총장인선절차제정을 위한 Task Force Team '이하 TFT라 함'. 정관은 총장인선에 관한 이사회의 정관개정 내용이 반영된 정관을 의미함
 - 정팔교 법인팀장이 이사회 회의 결과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이사회에서 총장인선 규정과 관련하여 활동한 내역을 대하여 설명하였다.
 - 이사회에서 결정한 정관 내용과 TFT에서 이사회와의 비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이사회에 제안한 규정(안)과의 차이에 대해서 장규열 평의원이 설명하였다.

구 분	TFT에서 제안한 규정(안)	정관 개정 내용
총장의 중임 여부	▪ 이사회 결정에 앞서 대학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 진행	▪ 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이사회에서 결정

구 분	TFT에서 제안한 규정(안)	정관 개정 내용
총장인선위원회	▪ 공동체 참여	▪ 공동체 참여 배제
총장발굴위원회	▪ 청빙위원회 구성(공동체 참여)	▪ 청빙위원회 구성과 유사함
규정 마련 배경에 대한 이해	▪ 이사장이 총장 인선에 관련된 별도의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공동체에 약속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TFT에서 지금까지 활동하였으나 정관에 일부 규정이 개정되는 차원에서 확정 됨	

- 이번 평의회회에서 총장인선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정을 두고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 TFT에서 2년 반에 걸쳐 진중하게 고민한 내용을 정관에서 찾기 힘들고 내용 자체에서 이미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며, 대학평의회 차원에서 총장인선규정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논의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관련 내용 파악에 대한 것은 TFT내에서 충분히 진행되어 왔고 총학생회에서는 이미 히즈넷을 통하여 안내하였다. 이런 내용 파악은 히즈넷을 통해서 충분히 안내가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논의가 진행 될 경우 대학평의회에서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 평의회 의장이 정관 내용을 볼 때 이사회에서 공동체를 대하는 입장이 매우 고압적임을 정팔교 법인 팀장에게 안내하면서 이사회의 입장 설명을 요청하였다.
- 정팔교 법인팀장이 이사회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의원들에게 설명하였다
 - 지금까지 총장인선에 대한 권한은 이사회에 있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사회에서도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다. 큰 흐름에서 논의 된 내용은 총장인선과 관련하여 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참여하는 그 자체는 정말 좋은 것이지만 이 경우 기존 총장이나 앞으로 올 총장이 공동체 구성원의 눈치를 보게 될 수 있고 결국 인기위주의 타협여지 큰 행정이 추진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결국 의견수렴 등 공동체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총장이 소신을 가지고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틀은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더하여 총장인선위원회에 교수가 참여하고 교수 위주로 총장후보가 추천이 되면 외부에서 총장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차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고민하고 우려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 정관에 있는 총장발굴위원회에 대한 평의원의 의견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 정관 내용을 보면 발굴위원회 역할이 없다. 역할이 없는데 역할이 있는 것처럼 정관을 공동체에 안내하는 것은 고압적으로 보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장규열 평의원이 TFT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과 정팔교 법인 팀장이 설명한 이사회의 우려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총장인선의 최종 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며 그것은 이사회 고유의 권한인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한다. TFT에서 규정(안)으로 제안한 총장인선위원회는 여러 총장후보 중에서 최종 후보 2~3인으로 이사회에 최종 추천할 후보를 압축하는 일만하는 것이다. 최종 결정은 결국 이사회 고유의 권한으로 드린 것이며, TFT에서 최초 총장인선규정(안)을 마련한 후에 외부에서 총장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차단될 수 있다는 이사 2분의 비공식적인 우려를 반영하여 이런 총장인선위원회를 거친 후에도 정말 좋은 총장후보를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할 경우 그 후보도 포함하여 인선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총장인선규정(안)을 마련한 것이었다. 또 한 가지 우려된 사항으로 공동체의 참여로 총장인선이 진행될 경우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었는데 참여 절차에서 최종후보로 결정된 후보만 공개하고 그 이전에 추천된 후보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 정팔교 법인 팀장이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정관에 총장인선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은 정관은 쉽게 하위에서 수정할 수 없고, 정관은 공개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을 설명하였다. 정관의 세부 세칙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정관의 무게감이 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하였음을 설명하였다.
- 정관 내용 자체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다.
 - 정관 내용 자체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미 불합리한 부분 존재한다. TFT에서 오랫동안 고민한 내용은 미반영되어 있고, 총장후보발굴위원회 만들어 달라는 요구한 적도 없으며 총장발굴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총장인선위원회에서 안 받으면 그만이다. 정관 내용에 대해서 TFT에서는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직접 설명회를 열어 공동체와 소통을 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는데 이사회에서 받아 들일지 의문이다.
- 평의위원회는 정관을 재개정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본다. TFT에서 이사회에 직접 관련 설명회를 요청한 것은 이 정관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정관에 반영된 총장후보발굴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구성원들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참여의 정신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TFT에서 이사회에 10월 7일까지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통을 할 것을 제안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10월 7일 이후에 평의위원회의 행보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 이미 정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한동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3년도에 공동체의 아픔을 겪은 후에 2년 반에 걸쳐 논의한 결과가 이 정관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국소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지금은 한동공동체에게 신속하게 내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10월 7일 이후에 이사회회의 행동을 보고 공개 토론회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이사회에서 빨리 설명회와 같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 정팔교 법인 팀장이 다음과 같이 추가 설명을 하였다.
 - 이사회는 총장인선에 관한 권한과 규정을 만드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의견을 들어서 이사회에서 규정을 만든다는 입장이었고 한동 공동체는 공동체에서 의견을 만들어서 이사회에 동의를 구하자는 너무나 다른 입장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된다. 2013년도에 이사 2분이 오셔서 소통을 하고 난 후에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한 부분이 있다.

※ 평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함

1. TFT에서 이사회에 제안한 사항이 있어 10월 7일까지 기다려 보고 이사 3분과 학교 대표 3분이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하고 정관을 재개정해 줄 것을 제안하기로 함.

○ 곡강개발 대처 방안 점검

- 진상호 사무처장이 곡강개발 대처 내용과 무발쪽 새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포항시에서 기적적으로 협조를 하여 내년 말까지 한동대 부지를 제외하고 개발 협조를 해줄기로 하였음을 안내하였다. 예산은 왕복 2차선의 경우 약 30억, 왕복 4차선의 경우 약 60억 정도가 소요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 양덕에서 신행만으로 새롭게 나고 있는 길에서 천마지로 진입로가 향후에 만들어지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경우 진입로가 현재 파워플랜트와 학생생활관으로 나야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있게 됨을 설명하였다.
- 곡강지구가 개발되면 현 진입로를 폐쇄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곡강지구조합을 적대시 할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푸른지구로의 새 진입로 개발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포항시가 모두 개발을 해줄 경우는 동의하지만 학교의 현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현재 학교의 기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장미 빛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향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개발을 계획하고 재정여건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경우 여건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 학령인구 절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교육내실화에 더 집중한 후에 개발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 비전 2025 중장기 발전계획

- 배건웅 의장님이 비전 2025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 여러 분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음을 언급하시고 아쉬운 점이 있으면 의견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총동문회 입장에서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에 총동문회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미흡했음을 최유강 동문평의원이 유선상으로 언급하면서 향후에는 동문회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필요함에 대해서 의견을 주었다.

- 총학생회 입장에서 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는 학생 평의원의 의견이 있었다.
- 행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교원의 경우 여러 지표 때문에 채용을 지속적으로 하지만 직원의 경우 직원 채용이 단절되어 있어 과중한 업무 등으로 많은 피로도가 있는 현실이며 향후 능동적인 행정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하여 최규학 평의원의 의견이 있었다.
-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이 다시 수립될 경우 더 많은 의견 수렴과 소통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의장이 언급하면서 향후 공동체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곡강지구가 개발되면 시내버스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곡강지구 개발 조합과 좋은 협력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사무처장의 의견이 있었다.

○ 결론

번호	내용
1	총장인선규정 관련 이사회 회의결과 - 토론을 거쳐 정관 재 개정 제안
2	곡강개발 대처방안 -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신규도로 개설은 보류하고 곡강개발조합측과의 전략적인 협조 권유
3	비전2025 - 졸업생들과 재학생, 은퇴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정책 추가 제안, 교직원과 신입교수들의 애로사항을 보듬는 따뜻한 분위기 조성과 대책 추가 제안
4	평의회 회의록 공유 - 홈페이지 평의회 공간 마련 적극적인 공시안 - 11월 중순까지 오픈

의견	배건웅	부의장	한윤식	평의원	장규열	평의원	황혜리	평의원	강사웅	평의원	최규학
	100000		<불참>						615		40000
평의원	주병창	평의원	백이삭	평의원	최유강	평의원	권상석	평의원	유승대		
	<불참>		백이삭		<유선참여>		권상석		<불참>		